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삶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 일 예 배 2025년 9월 7일 오후 1시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전능 왕 오셔서 / 찬송가 10(신) 34(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 찬송가 302(신) 408(구)

기도 / 조창 집사

성경 봉독 / 시편 86편 1-13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힘들 때의 찬양 / 박화신 목사

성찬식 / 못 박혀 죽으신 / 찬송가 385(신) 435(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진리와 생명 되신 주 / 찬송가 630(신) 547(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다윗은 결코 인간적으로 행복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현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듦은 조금 작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 찬양은 오히려 다윗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2. 다윗의 처절한 기도 표현은 우리에게 경각을 줍니다(1, 2, 3, 4, 6, 11).
3.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있게 말합니다. ‘나는 경건합니다’(2). ‘주를 의지합니다’(2).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3). ‘주를 우러러봅니다’(4). ‘주께 부르짖습니다’(7).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4. 그리고 찬양하는 다윗을 봅니다. 그의 찬양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 때의 찬양은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생명샘 장로교회 2025년 표어

디모데전서

4장 15-16절

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난 주일 설교 /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 골로새서 3장

1.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라는 말이 있지요. 웬지 거부하고 싶은 표현이지만 사실 맞는 말입니다. “남이 나를 필요하게 만들라. 그러면 반드시 그들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어떤 지명도 있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2. 그런데 어쩌지요.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서 말이죠. 주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우리의 물질과 능력 그리고 명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 할 수 있지요.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삶의 풍요와 모습은 그분의 진정한 나라와 비례하지 않고 또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3.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복을 이미 받은 주님의 교회는 찾는 것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을 버리면 된다고요. 자신의 만족과 인간적인 편안함에 안주하면 반드시 그 마음에는, 그 어떤 종류이든 탐심이 자리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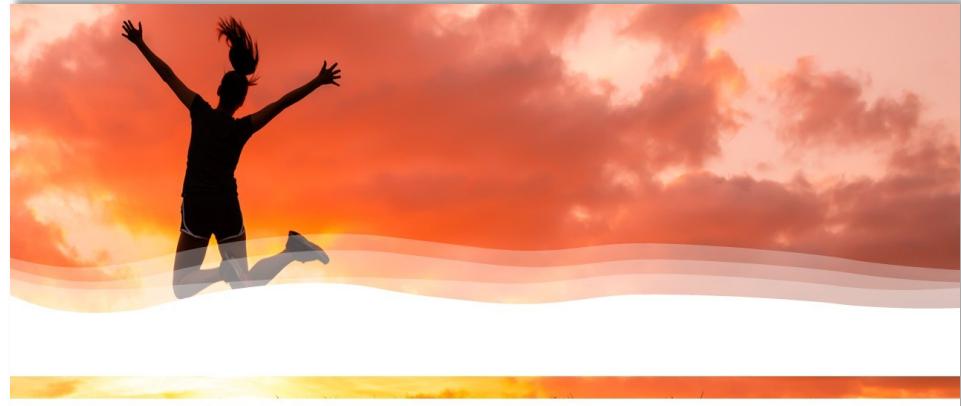
4.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전혀 새로운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넓고 고장나 있기에 새 것으로 교체하신 것이 아니라, 전에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그 ‘새로움’ 안에는 주님의 형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5. 주님의 형상이요 영광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에, 우리의 기도가 가능한 것 이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이기적이었던 그리고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변했던 그 자아가 감사하는 새로운 존재로 바뀝니다. 주님을 찬송할 수 밖에 없는 예배의 마음은 남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며, 이 놀라운 삶의 변혁은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달아 또 다른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6.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생명샘소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라는 표어로 남은 귀한 시간들을 계속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으로 성숙해지는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글로새서 공부를 통해 귀한 주님의 인도하심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5. ‘내 인생의 찬송’을 하나 정하시길 바랍니다.
6. 교우소식
김정신 권사님 뉴욕 방문중이십니다.
7. 이번 주 기도제목
강승우 선교사님(파라과이)을 위해(원주민 전도에 지치지 않도록)
금요 성경공부(글로새서)에 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교우들의 건강과 기도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성경 말씀에는 다윗의 기도에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정작 기뻐하는 것은 다윗 자신인데 말이지요. 다른 사람이 나 자신에게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할 수 있나요? 기쁨이야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기쁜 일이 생기면 저절로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요?

차라리 “주여 나에게 기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오히려 더 가깝고 또한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왜 굳이 마치 기계 스위치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듯이, 나의 솔직한 기분과 상관 없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다윗 스스로의 감정 혹은 의지를 자신이 조절할 수 없고 절제할 수 없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불평, 불만이 있고 분노와 혐오가 가득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친하고 싶었습니다. 머리로만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는 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의 원하심을 살고 싶었습니다. 본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도움을 간절히 요청한 것이지요.

어려울 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철저히 그분과 동행하길 원했기에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9월 예배 위 원

안내	박래석	최명희
기도	조창(7)	박승화(14)
한광기(21)		
최명희(28)		
교회 모임 안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주일 오후 1시		제직 금요 성경 공부
주일 오후 1시		성경공부 성경 읽기
주일 오후 1시		주일 저녁 7시 30분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8시
주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저녁 7시 30분		매달 네번째 토요일